MULTI ASSET STRATEGY

2026. 4. 3.

글로벌 투자전략팀

유승민 chief strategist
(지정학, 자산배분전략)
research@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이란전쟁과 주식시장 역사의 교훈

과거 주요 위기 당시와 비슷한 조정 기록

- 이란전쟁 이후 S&P500 조정 기간, 폭은 역대 주요 지정학 이벤트 최상위권
- 전쟁 발발 전에 글로벌 경제성장, 인플레 전망이 건전했다는 점은 긍정적
- 트럼프 대국민 연설로 시한 정해짐에 따라 시장은 점차 관심 이동할 것

1970년대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지정학 이벤트는 약 30여 차례. 이 경우 S&P500 지수는 최대 36일 하락(개장일 기준, 평균 9일, 중앙값 5일). 이번 이란전쟁은 3.31일 최저치 기준 21일간 하락. 이는 역대 4번째로 긴 기간. 하락 폭으로는 '22년 러-우 전쟁 발발 이후와 비슷한 -7.8%.

그렇다면 과거 지정학 이벤트 발발 이후 주식시장이 충격을 회복하는 데 얼마나 걸렸을까? 단순 통계로는 1~3개월 후 52~58%, 6개월~1년 후에는 65~71%가 이벤트 이전 주가를 회복함. 물론 지정학만을 주식시장의 성과를 결정하는 독립 변수로 보기 어려워 이러한 분석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

전쟁과 같이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경우 투자자들은 흔히 2가지 편향(가용성 편향[1], 최근성 편향[2])에 빠지기 쉬움. 이는 과도한 패닉 매도와 비효율적 투자 의사결정을 초래. 하지만. 경기 침체가 없이 이벤트에 의한 주식시장 하락은 결국은 단기간,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던 것이 역사적 교훈.

이번 이란전쟁 발발 이전 글로벌 매크로가 양호했음을 주목할 필요. 경기 침체 확률이 매우 낮았고 그 마저도 낮아지고 있었음. 장기적인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유지되던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금리 동결을 유지하거나 추가 인하를 예고했음.

4.1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주는 핵심 시사점은 단기간 내 전쟁을 끝내겠다는 것. 물론 여전히 위험은 남아 있음. 이란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타격을 예고했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 하지만, 당사 지정학팀은 향후 위험이 통제되는 수준으로 예상.

이 경우 글로벌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 물론 아직은 불확실이 크지만 주요 기관은 이번 충격 이후 12개월 내 글로벌 경기 침체 확률은 30~50% 수준으로 예상 중. 이번 사태에서 한국 등 아시아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사실이나, 전후 에너지 가격 등 객관적 데이터를 전망할 시점.

(다음 페이지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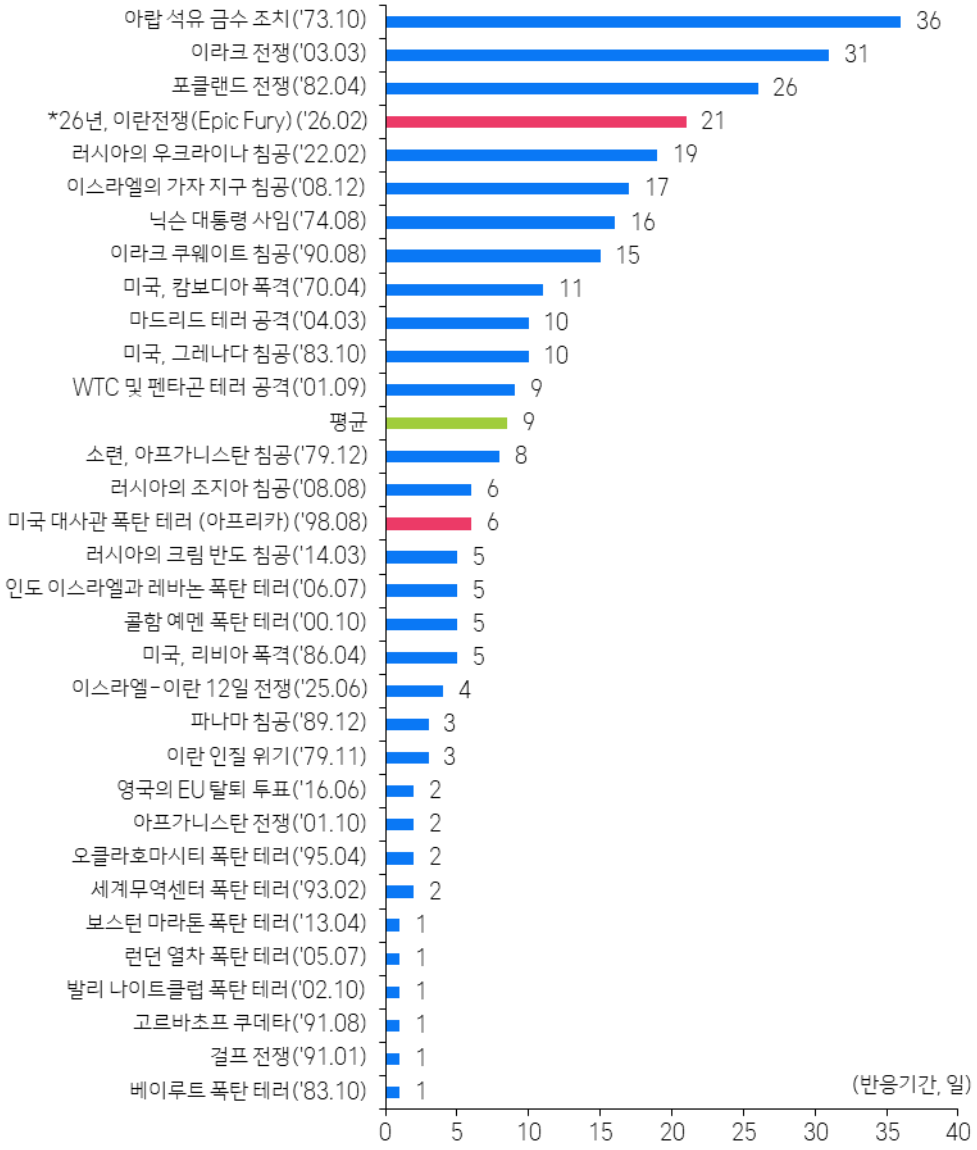
[1] Availability Bias, 통계보다는 가장 최근에 접한 자극적인 정보(뉴스 등)을 더 중요하게 여겨 판단을 왜곡하는 편향.
[2] Recency Bias, 과거 사례보다 최근 사건을 더 크게 인식하고 기억하는 편향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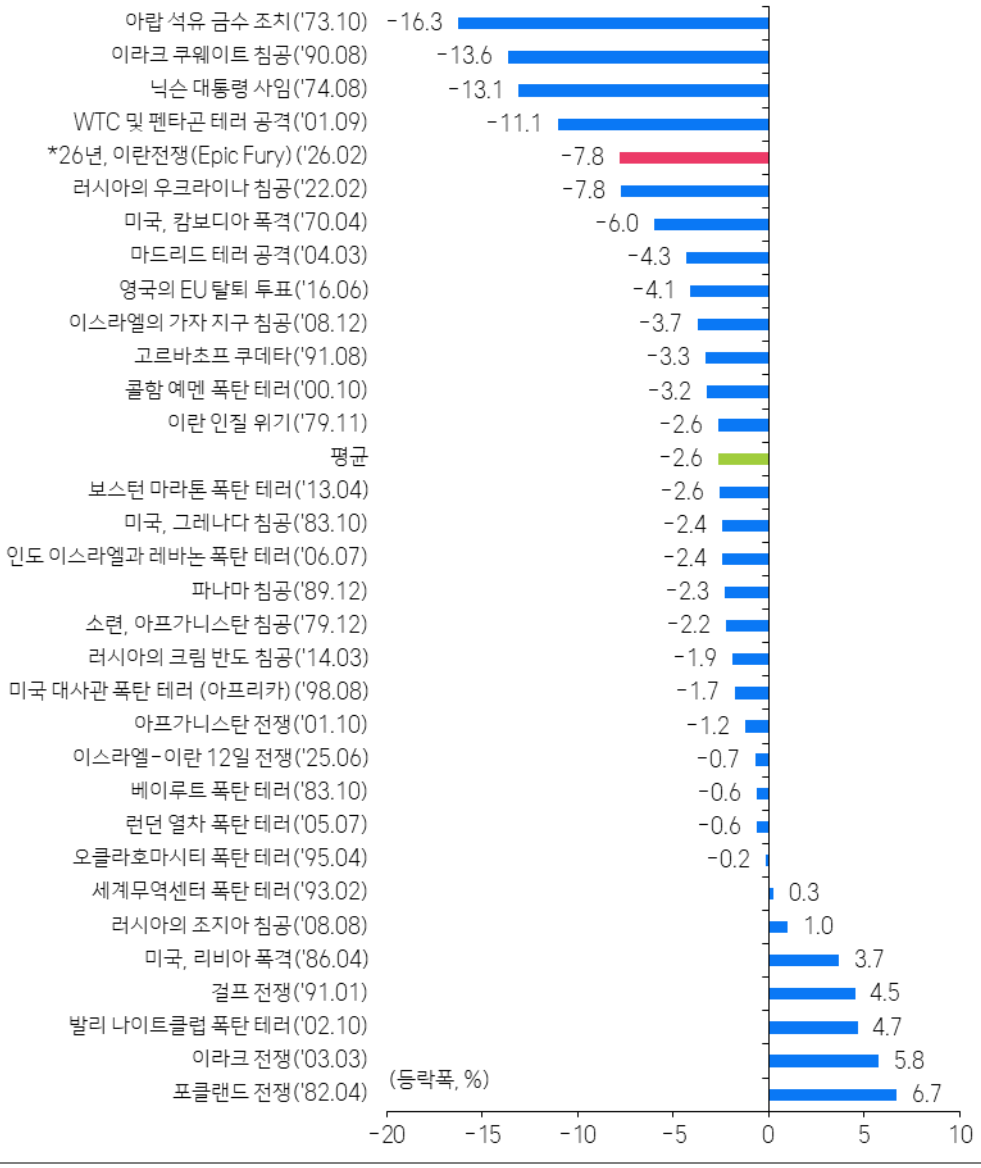
삼성증권

그림 1. 주요 지정학 이벤트 발발 시 S&P500 반응 기간



참고: 반응 기간은 이벤트 발발 이후 S&500 하락 기간), 캘린더 일수 기준
자료: 삼성증권, Bloomberg

그림 2. 주요 지정학 이벤트 발발 시 S&P500 반응 기간 중 등락



참고: 반응 기간은 이벤트 발발 이후 S&500 하락 기간), 캘린더 일수 기준
자료: 삼성증권, Bloomberg

표 1. 주요 지정학 이벤트의 이후 회복력

반응기간 순위	이벤트	이벤트 전 대비(%)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1	아랍 석유 금수 조치('73.10)	-11.2	-15.3	-16.0	-30.3
2	이라크 전쟁('03.03)	7.7	13.8	18.6	30.6
3	포클랜드 전쟁('82.04)	-0.1	-2.8	8.0	31.0
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02)	1.8	-11.5	-15.5	-11.7
6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침공('08.12)	-4.3	-6.8	2.3	21.1
7	닉슨 대통령 사임('74.08)	-12.9	-8.2	-12.8	11.2
8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90.08)	-10.9	-12.8	-7.7	7.0
9	미국, 캄보디아 폭격('70.04)	-5.1	-4.9	2.5	17.3
10	미국, 그레나다 침공('83.10)	1.2	1.8	-5.8	-8.6
10	마드리드 테러 공격('04.03)	-1.0	-2.2	-4.0	4.5
12	WTC 및 펜타곤 테러 공격('01.09)	0.5	5.9	4.4	-1.7
13	소련, 아프가니스탄 침공('79.12)	5.6	1.0	-1.4	16.8
14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 (아프리카)('98.08)	-9.9	-2.3	9.9	25.5
14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08.08)	-1.9	-25.7	-29.9	-31.6
16	미국, 리비아 폭격('86.04)	0.2	3.9	5.0	3.7
16	콜함 예멘 폭탄 테러('00.10)	0.9	-8.8	-9.5	-12.7
16	인도 이스라엘과 레바논 폭탄 테러('06.07)	-0.1	4.0	10.7	12.7
16	러시아의 크림 반도 침공('14.03)	-0.6	0.0	5.4	9.9
20	이스라엘-이란 12일 전쟁('25.06)	4.3	6.2	11.2	15.3
21	이란 인질 위기('79.11)	4.1	6.3	4.2	16.6
21	파나마 침공('89.12)	-0.7	-6.6	-5.4	-7.6
23	아프가니스탄 전쟁('01.10)	-0.9	6.3	3.5	-3.0
23	영국의 EU 탈퇴 투표('16.06)	3.8	4.6	2.0	13.9
25	고르바초프 쿠데타('91.08)	-1.2	0.2	1.9	4.9
25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13.04)	2.0	2.9	3.3	14.7
27	베이루트 폭탄 테러('83.10)	-0.2	-2.3	-5.7	-8.3
27	세계무역센터 폭탄 테러('93.02)	2.1	-0.2	1.1	4.2
27	오클라호마시티 폭탄 테러('95.04)	3.8	8.9	10.1	21.3
27	발리 나이트클럽 폭탄 테러('02.10)	13.0	10.6	3.9	23.9
31	걸프 전쟁('91.01)	14.5	16.8	19.5	23.2
31	런던 열차 폭탄 테러('05.07)	2.4	2.2	2.2	8.3
평균		0.2	-0.5	0.5	7.2
중앙값		0.2	0.2	2.3	9.9
(+) 이벤트 전 S&P500 최고치 회복 확률		51.6	54.8	64.5	71.0

참고: 반응 기간은 이벤트 발발 이후 S&500 하락 기간), 캘린더 일수 기준
자료: 삼성증권, Bloomberg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